

# 별교권역 관광테마로드로 잇는다

보성군, 6개 개발 사업과 연계 생태 탐방로·해상테크 등 1000억대 지역관광사업 추진



보성군이 총사업비 1000억원을 투자해 별교권역 관광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별교를 전경.

보성군이 400억원을 투입해 별교-장도 간 관광테마로드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별교권역에서 이뤄지는 다른 관광개발 사업들과 연계하면 총사업비 1000억원 규모의 대단위 지역 개발 사업이다.

27일 보성군에 따르면 군은 별교권역 관광개발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별교-장도 간 관광테마로드 조성 사업을 진행한다. 별교를 장암리와 장도리 일원에 300억원을 들여 장암리-해도-장도의 생태관광 탐방로(1.3km)와 해상테크(1.9km)를 조성한다.

별도로 100억원을 투입해 습지보호센터도 건립한다. 탐사협약에 등록된 갯벌보전습지인 여자만과 별교 갯벌의 생태학적인 우수성을 알려 지역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남도에 400억원 규모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고, 다음 달 정부 예산 반영을 요구할 계획이다.

보성군은 특히 관광테마로드 사업을 현재 별교 권역에서 추진 중인 다른 관광사업과 연계해 총사업비 1000억원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키워 시너지 효과를 낼 계획이다.

연계사업은 소설 태백산맥 테마공원 조성(80억

원), 여자만 갯벌갯벌 해양테마공원 조성(90억원), 어촌뉴딜(장항항 상진항 177억원) 사업, 가고 싶은 섬 가꾸기(40억원) 등이다. 문화재청 사업인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200억원)와 제석산 수석공원 조성(40억원)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보성군은 별교-장도 간 생태탐방로 사업이 추진되면 태백산맥문학관에서부터 별교 끝 장도까지 서에서 동으로 가는 관광로드가 완성돼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승남 의원과 함께 중앙부처를 방문해 사업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다.

김 군수는 "별교 관광로드는 소설 태백산맥, 갯벌, 국가중요어업유산인 뱀배, 꼬막 등 지역의 문화와 자연을 품고 있다"며 "가장 별교다운 색깔을 지닌 관광자원으로 보성 동부권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 'YSP피스로드' 자전거 국토대장정

청년 등 300여명 여수서 힘찬 출발



YSP 청년회원 300여명이 지난 25일 여수시 이순신광장에서 '2020 YSP 피스로드' 출범식을 한 뒤 국토대장정 자전거 중주에 나섰다. <YSP피스로드 제공>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를 염원하며 세계인이 함께 달리는 '2020 YSP 피스로드'가 여수 코스를 완주했다.

27일 YSP(세계평화청년연합)에 따르면 YSP 호남 청년들이 여수에서 '서울에서 평양까지 통일의 길을 열자'라는 주제로 피스로드 국토대장정 자전거 중주를 진행했다.

청년단체 YSP와 피스로드조직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 300여명의 참가자들은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여수일대 약 20km 코스를 완주했다.

YSP피스로드 중주단은 여수 이순신광장에서 출발해 릴레이 방식으로 전남도 곳곳을 거쳐 8월 29일 DMZ가 있는 파주 임진각까지 평화활동의 여정을 이어간다.

특히 이 기간 YSP 피스디자이너 어셈블팀(PD 어셈블)은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유치'를 슬로건으로 온-오프라인 '우리나라 지도 그리기' 통일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 피스로드팀이 국토 중주를 하는 동안 PD어셈블팀은 지역 사회를 위한 방역·봉사활동에 나선다.

출발점에 선 김은선(여·20) 참가자는 "피스로드로 인해 남북통일에 대한 관심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한반도 평화통일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정국진 YSP피스로드 호남센터장은 "피스로드의 평화정신은 지역사회 이슈 해결과 같은 작은 실천"이라며 "8월까지 통일운동과 더불어 지역민을 위한 농어촌 농활 지원, 해양 쓰레기 근절 위한 리틀 바이 리틀(Little by Little) 환경 캠페인도 펼친다"고 활동 방향을 소개했다.

송광석 피스로드 한국실행위원장은 "참가자들의 열정으로 통일비전을 실천하자"며 "YSP피스로드는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피스디자이너(Peace

Designer) 청년 활동가들이 시민들에게 자전거로 국토를 중주하며 통일운동 대회 출범을 알리는 주역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행사는 남북민간교류의 물꼬를 잇기 위해 '2032 서울-평양 올림픽' YSP피스로드 캠페인을 온-오프라인 전 세계 시민운동으로 확대한다. 세계 130개국 YSP 청년학생 1만명이 참가해 8월 29일까지 전국 곳곳을 자전거로 중주하며 국가별 라이딩에 참여한다고 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기자 노트

### 지리산 성삼재 버스 운행에 커지는 분노



이진택 제2사회부 부국장

구례군민이 분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에서 지리산 노고단 아래 성삼재까지 시외버스 운행 노선을 인가(광주일보 7월14일자 7면)해준 때문이다.

지리산은 민족의 영산이요, 어머니 같은 산이다. 연일 쏟아지는 언론 보도는 국토부가 이해 당사자인 구례군과 전남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경남도와 버스운송업체의 편만 일방적으로 들었다는 지적이다. 주민 모르게 찾길을 낸 행위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지리산의 환경오염을 생각하지 않고 수도권 승객의 편의만을 고려한 단체포적인 행정행위는 비판이다.

광주일보의 첫 보도 이후 구례지역 130여개 사회단체와 주민들은 지리산 성삼재 시외버스 운행 반대 구례군민추진위원회를 구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추진위는 전남도와 국토부를 차례로 방문해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노선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항의시위를 벌였다.

전남도는 구례군민의 의견을 반영해 노선 철회와 조정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구례지역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국토부와 경남도에 노선 인가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철회할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한다.

시외버스 운송업체 측은 지난 24일과 25일 양일간 버스 운행을 강행했다.

서울을 출발한 시외버스는 장맛비 속에 새벽 3시30분께 성삼재 초입에 도착했고, 이를 막는 군민들과 마찰을 빚었으나 경찰의 출동으로 큰 충돌없이 운행했다.

첫 운행 버스에 탑승한 운송업체 대표는 "노선

철회는 있을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버스 운행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리산의 여건과 전남도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삼재 버스노선 신설을 인가했을까.

수도권 사람들의 지리산 구경을 보다 편리하게 해주기 위함인가, 아니면 운송업체의 경영 편익을 돕기 위해서인가.

국토부에 따져물어도 목록부담이 다. 그래서 더욱 의문이 든다.

구례군은 연간 50만대가 넘는 자동차가 운행하는 노고단도로를 폐쇄할 계획이다. 지리산 오염 방지를 위해서다.

대신 셔틀버스 운행, 케이블카 설치 등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구상 중이다. 전남도도 이같은 방안이 협력하기로 했다.

이런 까닭에 전남도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를 꼬집지 않을 수 없다.

시외버스 노선 협의가 광역단체 간 협의사항이지만,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해당 기초자치단체에는 한 번쯤 의견을 물었어야 하지 않겠는가.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더욱 더 그랬어야 했다.

취재 결과, 전남도는 구례군에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다.

또 경남도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하지만 그것은 1년 전 일이다. 전남도는 이후 국토부 인가가 날 때까지 무관심과 소극행정으로 일관했다. 비난받아 마땅하다.

버스가 떠난 것이 아니고 버스가 왔다. 이제라도 구례군과 전남도가 손을 잡고 모두가 납득할 만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뒷북 행정이 됐지만 지금이라도 되돌려 놓아야 한다.

/lit@kwangju.co.kr

### 특허청, '곡성토란' 상표 사용 독점권 인정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획득...브랜드가치 상승·소득 증가 기대



곡성토란 GOKSEONG TARO

곡성군은 지역 특화품목인 '곡성토란'이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곡성군은 전국 최초 토란 품목 지리적 표시 인증을 받았다.

지리적 표시는 해당 상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것으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관할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특허청 관할로 해당 표장에 대한 상표권을 인정받는 의미가 있다.

곡성 토란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면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토란에는 '곡성'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곡성군은 재배면적 기준으로 전국 약 40%, 생산량 기준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 전국 최대 토란 주산지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곡성 토란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관련 업체의 소득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그린알로에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첨가료 ★ 감미료 ★ 합성향료 ★